문 1. 다음 <표>는 2016 ~ 2018년 '갑'국의 공무원 집합교육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B, C, D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공무원 집합교육 실적

(단위: 회, 명)

분류	과정 \ 연도	2016 차수	2016 교육인원	2016 연인원	2017 차수	2017 교육인원	2017 연인원	2018 차수	2018 교육인원	2018 연인원
기본교육	고위	2	146	13,704	2	102	14,037	3	172	14,700
	과장	1	500	2,500	1	476	1,428	2	580	2,260
	5급	3	2,064	81,478	3	2,127	86,487	3	2,151	89,840
	6급 이하	6	863	18,722	6	927	19,775	5	1,030	22,500
	소계	12	3,573	116,404	12	3,632	121,727	13	3,933	129,300
가치교육	공직가치	5	323	1,021	3	223	730	2	240	800
	국정과제	8	1,535	2,127	8	467	1,349	6	610	1,730
	소계	13	1,858	3,148	11	690	2,079	8	850	2,530
전문교육	직무	6	395	1,209	9	590	1,883	9	660	2,100
	정보화	30	2,629	8,642	29	1,486	4,281	31	1,812	5,096
	소계	36	3,024	9,851	38	2,076	6,164	40	2,472	7,196
전체		61	8,455	129,403	61	6,398	129,970	61	7,255	139,026

※ 차수는 해당 교육과정이 해당 연도 내에 진행되는 횟수를 의미하며, 교육은 시작한 연도에 종료됨.

<보고서>

2017년 공무원 집합교육 실적을 보면, 연인원은 전년보다 5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교육인원은 전년 대비 20 % 이상 감소하였다. 2017년 공무원 집합교육 과정별 실적을 보면, 교육인원과 연인원은 각각 [A]과정이 가장 많았으며, 차수당 교육인원은 [B]과정이 가장 많았다.

2018년 공무원 집합교육 실적을 보면, 전체 차수는 2017년과 같은 61회였으나, 교육인원과 연인원은 각각 전년보다 [C]. 한편, 기본교육 중 '과장'과정의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 비율을 보면, 2018년은 2017년에 비해서는 [D]하였으나, 2016년에 비해서는 [E]하였다.

	B	C	D
①	5급	적었다	감소
②	5급	많았다	증가
③	5급	많았다	감소
④	과장	적었다	증가
⑤	과장	많았다	감소

문 2. 다음 <표>는 일제강점기 8개 도시의 기간별 물가와 명목임금 비교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일제강점기 8개 도시의 물가 비교지수

기간 \ 도시	경성	대구	목포	부산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1910 ~ 1914년	1.04	0.99	0.99	0.95	0.95	1.05	1.06	0.97
1915 ~ 1919년	0.98	1.03	0.99	0.96	0.98	1.03	1.03	1.00
1920 ~ 1924년	1.03	1.01	1.01	1.03	0.96	0.99	1.05	0.92
1925 ~ 1929년	1.05	0.98	0.99	0.98	0.98	1.04	1.05	0.93
1930 ~ 1934년	1.06	0.96	0.93	0.98	1.06	1.00	1.04	0.97
1935 ~ 1939년	1.06	0.98	0.94	1.01	1.02	0.99	1.02	0.98

※ 기간별 각 도시의 물가 비교지수는 해당 기간 8개 도시 평균 물가 대비 각 도시 물가의 비율임.

<표 2> 일제강점기 8개 도시의 명목임금 비교지수

기간 \ 도시	경성	대구	목포	부산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1910 ~ 1914년	0.92	0.83	0.89	0.96	1.01	1.13	1.20	1.06
1915 ~ 1919년	0.97	0.88	0.99	0.98	0.92	1.01	1.32	0.93
1920 ~ 1924년	1.13	0.93	0.97	1.05	0.79	0.96	1.32	0.85
1925 ~ 1929년	1.05	0.83	0.91	0.98	0.95	1.05	1.36	0.87
1930 ~ 1934년	1.06	0.86	0.84	0.96	0.96	1.01	1.30	1.01
1935 ~ 1939년	0.99	0.85	0.85	0.95	1.16	1.04	1.10	1.06

※ 기간별 각 도시의 명목임금 비교지수는 해당 기간 8개 도시 평균 명목임금 대비 각 도시 명목임금의 비율임.

<보 기>

ㄱ. 경성보다 물가가 낮은 도시는 '1910 ~ 1914년' 기간에는 5곳이고 '1935 ~ 1939년' 기간에는 7곳이다.

ㄴ. 물가와 명목임금 모두가 기간별 8개 도시 평균보다 매 기간에 걸쳐 높은 도시는 한 곳뿐이다.

ㄷ. '1910 ~ 1914년' 기간보다 '1935 ~ 1939년' 기간의 명목임금이 경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은 감소하였다.

ㄹ. '1920 ~ 1924년' 기간의 명목임금은 목포가 신의주의 1.2배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3. 다음은 '갑'국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자료는?

<보고서>

2018년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1,828개로 2017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각각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018년이 2017년보다 37.1%p 증가하였다.

2018년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017년보다 1.0%p 증가하였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이 초·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보다 낮았다. 한편, 남녀간 고용률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여 2018년 기혼 남성과 기혼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29.2%p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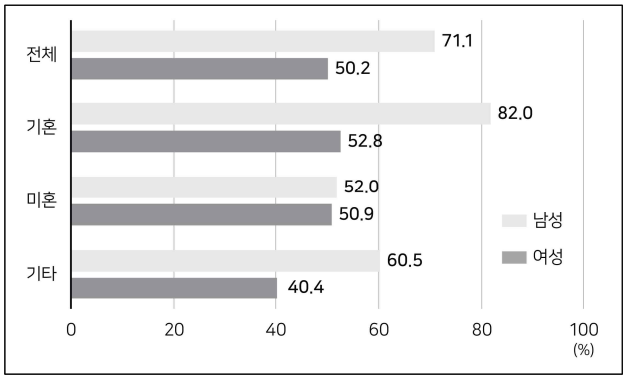
2018년 육아휴직자 수는 89,795명으로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였는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보다 증가한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① 육아지원제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육아휴직자 수	여성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남성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	여성	37	415	692	1,032	1,891	2,383
	남성	2	22	44	84	170	378

② 2018년 혼인상태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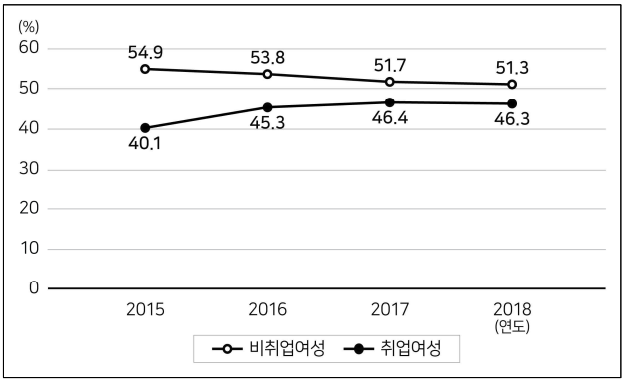


③ 가족친화 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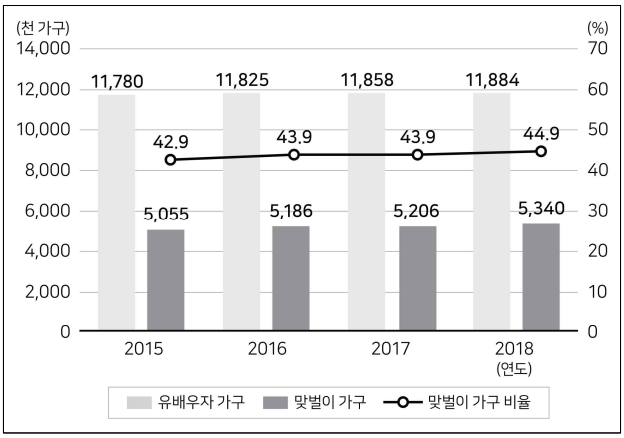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비율	전년 대비 증가율
대기업	223	258	285	15.6	10.5
중소기업	428	702	983	53.8	40.0
공공기관	305	403	560	30.6	39.0
전체	956	1,363	1,828	100.0	34.1

④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경력단절 경험 비율



⑤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현황



문 4. 다음 <표>는 2014 ~ 2018년 A기업의 직군별 사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표> 2014 ~ 2018년 A기업의 직군별 사원수 현황

(단위: 명)

연도 \ 직군	영업직	생산직	사무직
2018	169	105	66
2017	174	121	68
2016	137	107	77
2015	136	93	84
2014	134	107	85

※ 사원은 영업직, 생산직, 사무직으로만 구분됨.

<보 기>

ㄱ. 전체 사원수는 매년 증가한다.

ㄴ. 영업직 사원수는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수의 합보다 매년 적다.

ㄷ. 생산직 사원의 비중이 30% 미만인 해는 전체 사원수가 가장 적은 해와 같다.

ㄹ. 영업직 사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5. 다음 <보고서>는 2017년 '갑'국의 공연예술계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2017년 '갑'국의 공연예술계 관객수는 410만 5천 명, 전체 매출액은 871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2014년 이후 공연예술계 매출액과 관객수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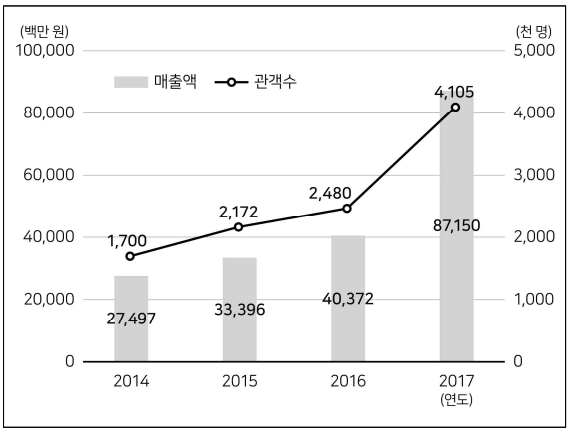
2017년 '갑'국 공연예술계의 전체 개막편수 및 공연횟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월간 개막편수가 전체 개막편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달은 3월뿐이고 월간 공연횟수가 전체 공연횟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달은 8월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갑'국 공연예술계 매출액 및 관객수의 장르별 편차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기준 공연예술계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이 '뮤지컬' 한 장르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관객수 상위 3개 장르가 공연예술계 전체 관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갑'국 공연예술계 관객수를 입장권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3만 원 미만' 입장권 관객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가장 비싼 '7만 원 이상' 입장권 관객수의 3.5배 이상이었다.

<보 기>

ㄱ. 2014 ~ 2017년 매출액 및 관객수



ㄴ. 2017년 개막편수 및 공연횟수

(단위: 편,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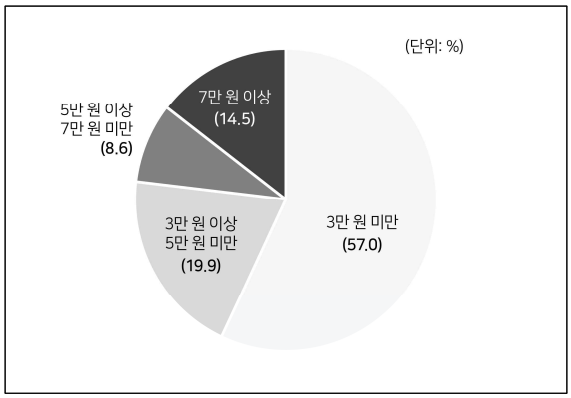
구분 / 월	개막편수	공연횟수
1	249	4,084
2	416	4,271
3	574	4,079
4	504	4,538
5	507	4,759
6	499	4,074
7	441	5,021
8	397	5,559
9	449	3,608
10	336	3,488
11	451	3,446
12	465	5,204
전체	5,288	52,131

ㄷ. 2017년 장르별 매출액 및 관객수

(단위: 백만 원, 천 명)

구분 / 장르	매출액	관객수
연극	10,432	808
뮤지컬	56,014	1,791
클래식	13,580	990
무용	5,513	310
국악	1,611	206
전체	87,150	4,105

ㄹ. 2017년 입장권 가격대별 관객수 구성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6. 다음 <표>는 2019년 12월 호텔A ~ D의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표> 2019년 12월 호텔A ~ D의 운영실적

(단위: 개, 만 원)

호텔	판매가능 객실 수	판매 객실 수	평균 객실 요금
A	3,500	1,600	40
B	3,000	2,100	30
C	1,250	1,000	20
D	1,100	990	10

※ 1) 객실 수입 = 판매 객실 수 × 평균 객실 요금

2) 객실 판매율(%) = $\frac{\text{판매 객실 수}}{\text{판매가능 객실 수}} \times 100$

<보 기>

ㄱ. 객실 수입이 가장 많은 호텔은 B이다.
ㄴ. 객실 판매율은 호텔C가 호텔D보다 낮다.
ㄷ. 판매가능 객실당 객실 수입이 가장 적은 호텔은 A이다.
ㄹ. 판매가능 객실 수가 많은 호텔일수록 객실 판매율이 낮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7. 다음 <표>는 '갑'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133명과 사무직 근로자 87명이 직무스트레스 조사에 응답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응답 구성비

(단위: %)

스트레스 수준 / 항목	상위		하위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업무과다	9.77	67.67	22.56	0.00
직위불안	10.53	64.66	24.06	0.75
관계갈등	10.53	67.67	20.30	1.50
보상부적절	10.53	60.15	27.82	1.50

<표 2>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응답 구성비

(단위: %)

스트레스 수준 / 항목	상위		하위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업무과다	10.34	67.82	20.69	1.15
직위불안	12.64	58.62	27.59	1.15
관계갈등	10.34	64.37	24.14	1.15
보상부적절	10.34	64.37	20.69	4.60

<보 기>

ㄱ. 항목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상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각 항목에서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높다.

ㄴ. '직위불안' 항목에서 '낮음'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많다.

ㄷ. '관계갈등' 항목에서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생산직 근로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생산직 근로자보다 11명 많다.

ㄹ. '보상부적절' 항목에서 '높음'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적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ㄹ

문 8. 다음 <표>는 산림경영인의 산림경영지원제도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산림경영인의 산림경영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명, %, 점)

구분	항목	응답자 수	인지도 점수별 응답자 비율					인지도 평균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경영 주체	독림가	173	2.9	17.3	22.0	39.3	18.5	3.53
	임업후계자	292	4.5	27.1	20.9	33.9	13.7	3.25
	일반산주	353	11.0	60.9	10.5	16.4	1.1	2.36
거주지 권역	경기	57	12.3	40.4	3.5	36.8	7.0	2.86
	강원	112	6.3	20.5	11.6	43.8	17.9	3.46
	충청	193	7.8	35.2	20.2	25.9	10.9	2.97
	전라	232	6.9	44.0	20.7	20.3	8.2	2.79
	경상	224	5.4	48.2	15.2	25.9	5.4	2.78
소유 면적	2 ha 미만	157	8.9	63.7	11.5	14.0	1.9	2.36
	2 ha 이상 6 ha 미만	166	9.0	43.4	16.9	22.9	7.8	2.77
	6 ha 이상 11 ha 미만	156	7.7	35.3	16.7	32.7	7.7	2.97
	11 ha 이상 50 ha 미만	232	4.3	30.6	17.2	36.2	11.6	3.20
	50 ha 이상	107	5.6	24.3	22.4	28.0	19.6	3.32
소재지 거주 여부	소재산주	669	5.8	41.0	15.7	28.4	9.1	2.94
	부재산주	149	12.1	33.6	20.8	23.5	10.1	2.86

※ 인지도 점수별 응답자 비율(인지도 평균점수)은 소수점 아래 둘째(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① 소유면적별 인지도 평균점수는 '50 ha 이상'이 '2 ha 미만'의 1.4배 이상이다.
② 거주지 권역별 인지도 평균점수는 '강원'이 '경기'보다 높다.
③ 인지도 점수를 2점 이하로 부여한 응답자 대비 4점 이상으로 부여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주지 권역은 '충청'이다.
④ 인지도 점수를 1점으로 부여한 '소재산주'는 5점으로 부여한 '부재산주'의 2배 이상이다.
⑤ 인지도 점수를 3점 이상으로 부여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경영주체는 '임업후계자'이다.

문 9. 다음 <표>는 2014 ~ 2018년 '갑'국의 전력단가와 에너지원별 평균정산단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4 ~ 2018년 전력단가

(단위: 원/kWh)

월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1	143.16	140.76	90.77	86.31	92.23
2	153.63	121.33	87.62	91.07	90.75
3	163.40	118.35	87.31	92.06	101.47
4	151.09	103.72	75.38	75.35	90.91
5	144.61	96.62	68.78	79.14	87.64
6	136.35	84.54	65.31	82.71	89.79
7	142.72	81.99	67.06	76.79	87.27
8	128.60	88.59	71.73	76.40	91.02
9	131.44	90.98	71.55	73.21	92.87
10	132.22	98.34	73.48	72.84	102.36
11	133.78	94.93	75.04	81.48	105.11
12	144.10	95.46	86.93	90.77	109.95
평균	142.09	101.30	76.75	81.51	95.11

※ 1년을 봄(3, 4, 5월), 여름(6, 7, 8월), 가을(9, 10, 11월), 겨울(12, 1, 2월)의 4계절로 구분함.

<표 2> 2014 ~ 2018년 에너지원별 평균정산단가

(단위: 원/kWh)

에너지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원자력	54.70	62.69	67.91	60.68	62.10
유연탄	63.27	68.26	73.93	78.79	81.81
LNG	160.73	126.19	99.39	111.60	121.03
유류	220.78	149.85	109.15	165.45	179.43
양수	171.50	132.75	106.21	107.60	125.37

<보 기>

ㄱ. 계절별 전력단가의 평균은 여름이 가을보다 매년 높다.
ㄴ. 2017년 대비 2018년 평균정산단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양수'이다.
ㄷ. 전력단가 평균과 '유류' 평균정산단가의 연도별 증감방향은 같다.
ㄹ. 에너지원별 평균정산단가 순위는 매년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10. 다음 <표>는 '갑'지역 조사 대상지에 대한 A, B 두 기관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상호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토지피복 분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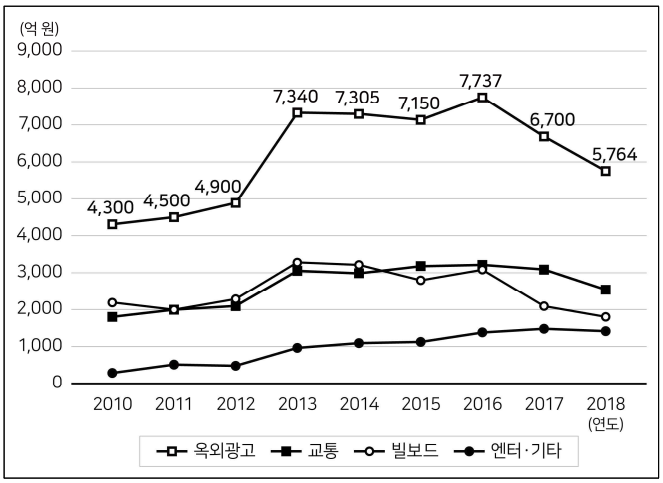
(단위: 개소)

A 기관 \ B 기관	대분류	세부분류	농업지역		산림지역			수체지역	소계
			논	밭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합림	하천	
	농업지역	논	840	25	30	55	45	35	1,030
		밭	50	315	20	30	30	15	460
	산림지역	침엽수림	85	50	5,230	370	750	20	6,505
		활엽수림	70	25	125	3,680	250	25	4,175
		혼합림	40	30	120	420	4,160	20	4,790
	수체지역	하천	10	15	0	15	20	281	341
	소계		1,095	460	5,525	4,570	5,255	396	17,301

① A 기관이 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B 기관이 혼합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은, B 기관이 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A 기관이 혼합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과 같다.
② B 기관이 침엽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10 % 이상을 A 기관은 다른 세부분류로 분류하였다.
③ B 기관이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A 기관도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은, A 기관이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B 기관도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과 같다.
④ 두 기관 모두 산림지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두 기관 모두 활엽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 이상이다.
⑤ 두 기관 모두 농업지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세부분류로 분류한 대상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A 또는 B 기관이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두 기관 모두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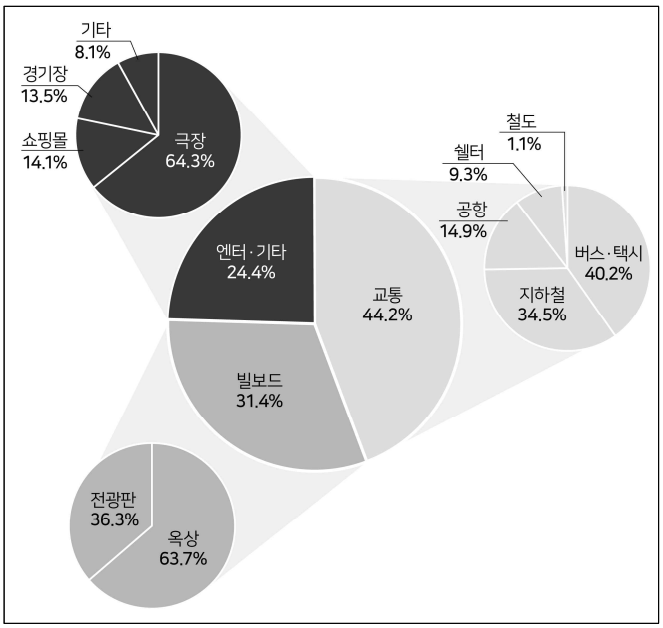
문 11. 다음 <그림>은 옥외광고 시장 규모 및 구성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옥외광고 시장 규모 추이



※ 옥외광고는 교통, 빌보드, 엔터·기타의 3개 분야로 구성됨.

<그림 2> 2018년 옥외광고 3개 분야 및 세부분야 시장 구성비



<보고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옥외광고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4,300억 원 규모였던 옥외광고 시장은 2016년 7,737억 원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2018년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2016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2018년 옥외광고 시장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8년 '교통' 분야 시장 규모는 2,500억 원 이상으로 옥외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옥외광고 세부분야별 시장 규모는 '옥상'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버스·택시', '극장', '지하철' 순이다. ㉣2018년 '엔터·기타' 분야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극장', '쇼핑몰', '경기장'을 제외한 시장 규모는 120억 원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12. 다음 <표>는 '갑'대학교 정보공학과 학생 A ~ I의 3개 교과목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학생 A ~ I의 3개 교과목 점수

(단위: 점)

교과목 / 학생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평균
A	( )	85.0	77.0	74.3
B	( )	90.0	92.0	90.0
C	71.0	71.0	( )	71.0
D	28.0	( )	65.0	50.0
E	39.0	63.0	82.0	61.3
F	( )	73.0	74.0	( )
G	35.0	( )	50.0	45.0
H	40.0	( )	70.0	53.3
I	65.0	61.0	( )	70.3
평균	52.4	66.7	74.0	( )
중앙값	45.0	63.0	74.0	64.0

※ 중앙값은 학생 A ~ I의 성적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값임.

<보 기>

ㄱ. 각 교과목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각각 5명 이상이다.
ㄴ. 교과목별로 점수 상위 2명에게 1등급을 부여할 때, 1등급을 받은 교과목 수가 1개 이상인 학생은 4명이다.
ㄷ. 학생 D의 빅데이터 교과목과 사물인터넷 교과목의 점수가 서로 바뀐다면, 빅데이터 교과목 평균은 높아진다.
ㄹ.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교과목은 사물인터넷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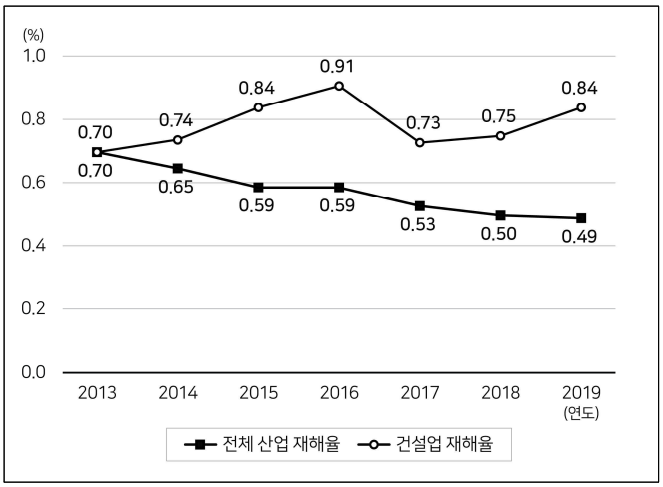
※ 다음 <표>와 <그림>은 2013 ~ 2019년 '갑'국의 건설업 재해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3. ~ 문 14.]

<표> 연도별 건설업 재해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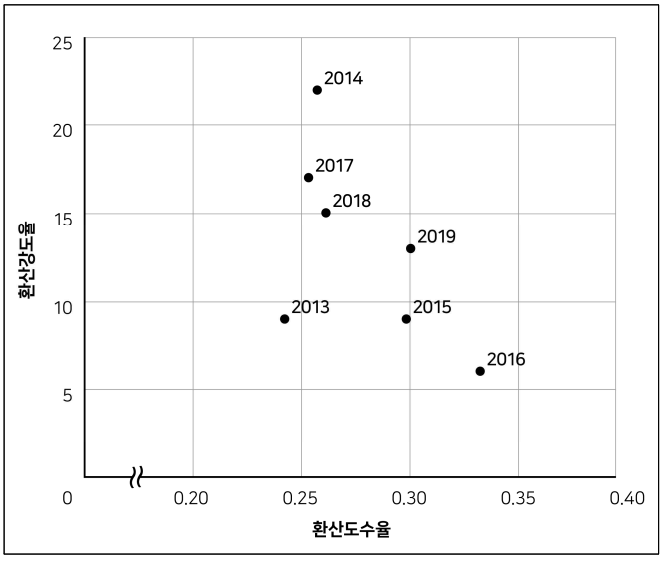
연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2013	3,200,645	22,405	611
2014	3,087,131	22,845	621
2015	2,776,587	23,323	496
2016	2,586,832	( )	667
2017	3,249,687	23,723	486
2018	3,358,813	( )	493
2019	3,152,859	26,484	554

<그림 1> 연도별 전체 산업 및 건설업 재해율 추이



※ 재해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근로자 수}} \times 100$

<그림 2> 연도별 건설업의 환산도수율과 환산강도율



※ 1) 환산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총 근로시간}} \times 100{,}000$

2) 환산강도율 = $\frac{\text{재해손실일수}}{\text{총 근로시간}} \times 100{,}000$

문 13. 위 <표>와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설업 재해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② 전체 산업 재해율과 건설업 재해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해는 2016년이다.

③ 2020년 건설업 재해자 수가 전년 대비 10 % 증가한다면, 건설업 재해율은 전년 대비 0.1 %p 증가할 것이다.

④ 2013년 건설업 근로자 수가 전체 산업 근로자 수의 20 %라면, 전체 산업 재해자 수는 건설업 재해자 수의 4배이다.

⑤ 건설업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건설업 환산강도율도 가장 높다.

문 14. 위 <표>와 <그림>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재해건당 재해손실일수가 가장 큰 연도와 가장 작은 연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장 큰 연도	가장 작은 연도
①	2013년	2014년
②	2013년	2016년
③	2014년	2013년
④	2014년	2016년
⑤	2016년	2014년

문 15. 다음 <표>는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구성된 유증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A ~ E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인공지능 시스템 A ~ E의 정확도

(단위: 명, %)

시스템 \ 판정 / 실제 감염 여부	양성		음성		음성 정답률	양성 검출률	정확도
	감염자	비감염자	감염자	비감염자			
A	0	1	8	991	( )	0.0	99.1
B	8	0	0	992	( )	100.0	100.0
C	6	4	2	988	99.8	75.0	99.4
D	8	2	0	990	100.0	( )	99.8
E	0	0	8	992	99.2	( )	99.2

※ 1) 정확도(%) = $\frac{\text{'양성' 판정된 감염자} + \text{'음성' 판정된 비감염자}}{\text{유증상자}} \times 100$

2) '양성(음성)' 정답률(%) = $\frac{\text{'양성(음성)' 판정된 감염(비감염)자}}{\text{'양성(음성)' 판정된 유증상자}} \times 100$

3) '양성(음성)' 검출률(%) = $\frac{\text{'양성(음성)' 판정된 감염(비감염)자}}{\text{감염(비감염)자}} \times 100$

<보 기>

ㄱ. 모든 유증상자를 '음성'으로 판정한 시스템의 정확도는 A보다 높다.
ㄴ. B, D는 '음성' 정답률과 '양성' 검출률 모두 100 %이다.
ㄷ. B의 '양성' 정답률과 '음성' 정답률은 같다.
ㄹ. '양성' 검출률이 0 %인 시스템의 '음성' 정답률은 100 %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ㄴ, ㄷ

문 16. 다음 <표>는 A 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6개 식품 섭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A 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6개 식품 섭취율

(단위: %)

식품	섭취 주기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라면	주 1회 이상	77.6	71.8	74.7	89.0	89.0	89.0
탄산음료	주 1회 이상	76.6	71.6	74.1	86.0	79.5	82.1
햄버거	주 1회 이상	64.4	58.2	61.3	73.5	70.5	71.7
우유	매일	56.7	50.9	53.8	36.0	27.5	30.9
과일	매일	36.1	38.9	37.5	28.0	30.0	29.2
채소	매일	30.4	33.2	31.8	28.5	29.0	28.8

※ 1) 섭취율(%) = $\frac{\text{섭취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text{응답 학생 수}} \times 100$

2) 초등학생, 중학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는 6개 식품에 대해 모두 응답하였음.

① 라면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수와 중학교 여학생의 수는 같다.
②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수는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수보다 적다.
③ 우유를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여학생 수는 275명이다.
④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중 햄버거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학생 수는 4명 이하이다.
⑤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여학생 수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많다.

문 17. 다음 <표>는 4명의 응시자(민수, 영수, 철수, 현수)가 5명의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가'~'라'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응시자의 면접관별 점수

(단위: 점)

면접관 / 응시자	면접관 1	면접관 2	면접관 3	면접관 4	면접관 5
가	10	7	5	9	9
나	8	5	( )	9	7
다	9	( )	9	( )	7
라	( )	5	8	8	9

※ 1) 각 면접관은 5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숫값을 면접 점수로 부여함.
2) 중앙값은 주어진 값들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값임. 예를 들면, 주어진 값들이 9, 6, 7, 5, 6인 경우 이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5, 6, 6, 7, 9이므로 중앙값은 6임.

<조 건>

○ 평균이 8인 응시자는 민수와 현수뿐이다.
○ 현수의 최솟값이 철수의 최솟값보다 크다.
○ 영수의 중앙값은 8이며 철수의 중앙값보다 크다.

	가	나	다	라
①	민수	영수	현수	철수
②	민수	철수	현수	영수
③	현수	민수	철수	영수
④	현수	영수	민수	철수
⑤	현수	철수	민수	영수

문 18. 다음 <표>는 2019년 '갑'국 13세 이상 인구의 독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표> 2019년 '갑'국 13세 이상 인구의 독서 현황

(단위: 권, %)

구분		1인당 연간 독서권수	독서인구 1인당 연간 독서권수	독서인구 비율
성별	남자	10.4	18.9	( )
	여자	8.1	14.2	57.0
연령대별	13~19세	15.0	20.2	74.3
	20~29세	14.0	( )	74.1
	30~39세	13.1	( )	68.6
	40~49세	9.6	15.2	63.2
	50~59세	5.9	12.6	46.8
	60~64세	2.8	10.4	26.9
	65세 이상	2.3	10.0	23.0
지역별	동부	4.5	17.4	25.9
	서부	5.5	12.8	43.0
	남부	8.1	14.9	54.4
	북부	14.0	18.3	76.5

※ '독서인구 비율'은 13세 이상 인구 중 독서인구(1년 동안 1권 이상 독서를 한 사람)의 비율임.

<보 기>

ㄱ. 남자의 독서인구 비율은 50% 이상이다.
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독서인구 1인당 연간 독서권수는 감소한다.
ㄷ.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의 13세 이상 인구비가 5:4라면, 독서인구는 서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많다.
ㄹ. 독서인구 1인당 연간 독서권수가 16.8권이라면, 13세 이상 인구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9. 다음 <표>는 Z리그 A~G족구팀의 경기 결과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Z리그 족구팀 세트 스코어와 최종 승점

구분 / 팀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6경기	승패	최종 승점
A	0:2	0:2	( )	( )	( )	0:2	2승 4패	6
B	2:1	2:0	0:2	1:2	0:2	1:2	2승 4패	7
C	1:2	2:0	0:2	2:1	2:0	2:1	4승 2패	11
D	2:0	1:2	2:0	2:0	2:0	2:1	5승 1패	15
E	( )	( )	1:2	0:2	( )	0:2	3승 3패	( )
F	0:2	0:2	2:0	2:0	2:0	2:0	4승 2패	12
G	1:2	2:0	0:2	0:2	0:2	1:2	1승 5패	5

※ 세트 스코어에서 앞의 수가 해당 팀이 획득한 세트 수임.

<조 건>

○ 한 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1번씩 경기한다.
○ 한 경기에서 2세트를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한다.
○ 세트 스코어가 2:0인 경우 승리팀에 승점 3점 및 패배팀에 승점 0점을 부여하고, 세트 스코어가 2:1인 경우 승리팀에 승점 2점 및 패배팀에 승점 1점을 부여한다.
○ 경기한 총 세트 수는 A와 G가 같다.

<보 기>

ㄱ. 모든 팀 최종 승점의 합은 60점 이상이다.
ㄴ. E가 승리한 경기의 세트 스코어는 모두 2:1이다.
ㄷ. A가 2:0으로 승리한 경기 수는 1개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0. 다음 <표>는 '갑'국의 친환경 농작물 생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친환경 농작물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 천 호, 천 ha, 천 톤)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재배농가	53	135	195	221
재배면적	53	106	174	205
생산량	798	1,786	2,188	2,258

<표 2> 연도별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별 재배면적

(단위: 천 ha)

생산방법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유기농	9	11	13	17
무농약	14	37	42	69
저농약	30	58	119	119

※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성됨.

<표 3> 2019년 친환경 농작물별 생산량의 생산방법별 구성비

(단위: %)

생산방법 / 친환경 농작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유기농	11	27	18
무농약	17	67	28
저농약	72	6	54
합계	100	100	100

※ 친환경 농작물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로 구성됨.

<보 기>

ㄱ. 재배농가당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한다.
ㄴ. 친환경 농작물 재배면적 중 '무농약'의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ㄷ. 2019년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별 재배면적당 생산량은 '유기농'이 '저농약'보다 많다.
ㄹ. 2019년 친환경 농작물별 생산량 비(곡류:과실류:채소류)가 1:2:3이라면,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 중 '저농약'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1. 다음 <표>와 <보고서>는 2014 ~ 2017년 IT산업 3개(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 분야의 인수·합병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 E국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2017년 IT산업 3개 분야 인수·합병 건수의 합은?

<표 1> 소프트웨어 분야 인수·합병 건수

(단위: 건)

국가 / 연도	미국	A	B	C	D	E
2014	631	23	79	44	27	20
2015	615	47	82	45	30	19
2016	760	72	121	61	37	19
2017	934	127	118	80	49	20
계	2,940	269	400	230	143	78

<표 2> 인터넷 분야 인수·합병 건수

(단위: 건)

국가 / 연도	미국	A	B	C	D	E
2014	498	17	63	68	20	16
2015	425	33	57	52	19	7
2016	528	44	64	61	31	14
2017	459	77	69	70	38	21
계	1,910	171	253	251	108	58

<표 3> 컴퓨터 분야 인수·합병 건수

(단위: 건)

국가 / 연도	미국	A	B	C	D	E
2014	196	12	33	32	11	3
2015	177	17	38	33	12	8
2016	200	18	51	35	16	8
2017	240	24	51	58	18	9
계	813	71	173	158	57	28

<보고서>

'갑'국의 IT산업 3개(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 분야 인수·합병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갑'국의 IT산업 인수·합병 건수는 3개 분야 모두에서 매년 미국의 10% 이하에 불과했다. 또한, 연도별 인수·합병 건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분야와 컴퓨터 분야의 인수·합병 건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인터넷 분야 인수·합병 건수는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였다.

① 50
② 105
③ 208
④ 228
⑤ 238

문 22. 다음 <표>와 <정보>는 5월 '갑'국의 관측날씨와 '가' ~ '라'팀의 예보날씨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정확도가 가장 높은 팀'과 '임계성공지수가 가장 낮은 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5월 '갑'국의 관측날씨와 팀별 예보날씨

구분 \ 날짜(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측날씨	흐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예보날씨 가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예보날씨 나	흐림	흐림	흐림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흐림	흐림	맑음
예보날씨 다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예보날씨 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정 보>

○ 각 팀의 예보날씨와 실제 관측날씨 분류표

예보날씨 \ 관측날씨	흐림	맑음
흐림	H	F
맑음	M	C

※ H, F, M, C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빈도를 뜻하며, 예를 들어 '가'팀의 H는 3임.

○ 정확도 $= \frac{H + C}{H + F + M + C}$

○ 임계성공지수 $= \frac{H}{H + F + M}$

	정확도가 가장 높은 팀	임계성공지수가 가장 낮은 팀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다	나
④	다	라
⑤	라	다

문 23. 다음 <표>는 '갑'국의 택배 물량, 평균단가 및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택배 물량, 평균단가 및 매출액
(단위: 만 박스, 원/박스, 억 원)

구분 / 연도	물량	평균단가	매출액
2015	181,596	2,392	43,438
2016	204,666	2,318	47,442
2017	231,946	2,248	52,141
2018	254,278	2,229	56,679

<보고서>

'갑'국의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약 9.6%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갑'국의 경제활동인구 1인당 택배 물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갑'국의 택배업 매출액은 2017년 대비 약 8.7% 증가한 5조 6,679억 원이었다. '갑'국 택배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1 ~ 2010년 19.1%, 2011 ~ 2018년 8.4%를 기록하였는데, 2011년 이후 성장률이 다소 둔화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 ~ 2018년 '갑'국 유통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동기간 택배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택배의 평균단가는 2015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보 기>

ㄱ. 2001 ~ 2014년 연도별 택배업 매출액
ㄴ. 2011 ~ 2018년 연도별 유통업 매출액
ㄷ. 2012 ~ 2014년 연도별 택배 평균단가
ㄹ. 2015 ~ 2018년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4. 다음 <표>는 2020년 3월 1 ~ 15일 '갑'의 몸무게, 섭취 및 소비 열량, 만보기 측정값,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몸무게, 섭취 및 소비 열량, 만보기 측정값, 교통수단
(단위: kg, kcal, 보)

구분 / 날짜	몸무게	섭취 열량	소비 열량	만보기 측정값	교통수단
1일	80.0	2,700	2,800	9,500	택시
2일	79.5	2,600	2,900	11,500	버스
3일	79.0	2,400	2,700	14,000	버스
4일	78.0	2,350	2,700	12,000	버스
5일	77.5	2,700	2,800	11,500	버스
6일	77.3	2,800	2,800	12,000	버스
7일	77.3	2,700	2,700	12,000	버스
8일	79.0	3,200	2,700	11,000	버스
9일	78.5	2,300	2,400	8,500	택시
10일	79.6	3,000	2,700	11,000	버스
11일	78.6	2,200	2,400	7,700	택시
12일	77.9	2,200	2,400	8,200	택시
13일	77.6	2,800	2,900	11,000	버스
14일	77.0	2,100	2,400	8,500	택시
15일	77.0	2,500	2,500	8,500	택시

<보 기>

ㄱ. 택시를 이용한 날은 만보기 측정값이 9,500보 이하이다.
ㄴ. 섭취 열량이 소비 열량보다 큰 날은 몸무게가 바로 전날보다 1 kg 이상 증가하였다.
ㄷ. 버스를 이용한 날은 몸무게가 바로 전날보다 감소하였다.
ㄹ. 만보기 측정값이 10,000보 이상인 날은 섭취 열량이 2,500 kcal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5. 다음 <보고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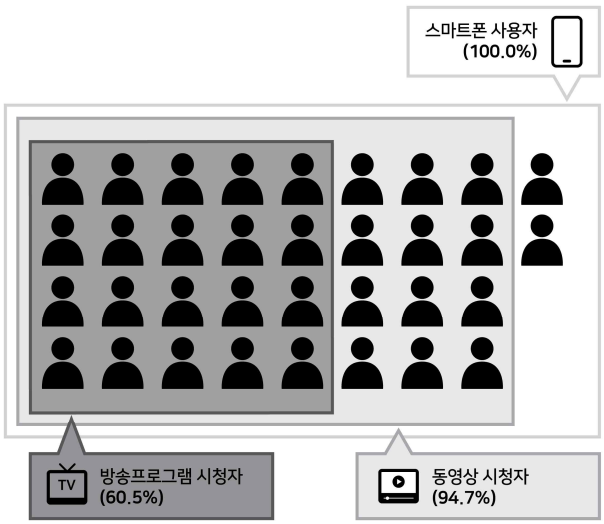
스마트폰 사용자 3,427만 명 중 월 1회 이상 동영상을 시청한 사용자는 3,246만 명이고, 동영상 시청자 중 월 1회 이상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사용자는 2,075만 명이었다. 월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은 월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10 % 이상이었으나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은 월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의 10 % 미만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자 중 동영상 시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90 % 이상인 반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방송프로그램 시청자의 비중은 '20대' ~ '40대'는 60 %를 상회하지만 '60대 이상'은 50 %에 미치지 못해 연령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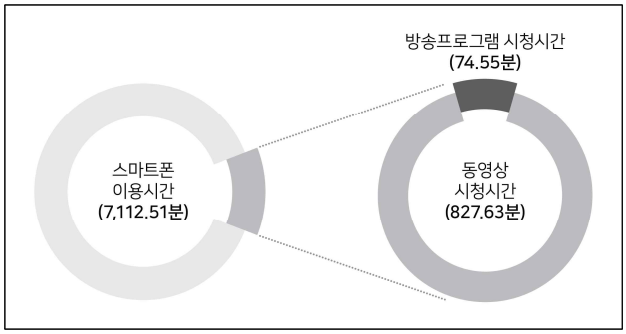
월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길고,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의 시청시간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9분 이상 길고,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시청시간이 가장 길었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의 3배 이상이다.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오락'이 전체의 45 % 이상으로 가장 길고, 그 뒤를 이어 '드라마', '스포츠', '보도' 순이었다.

① 스마트폰 사용자 중 월 1회 이상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비율



② 스마트폰 사용자의 월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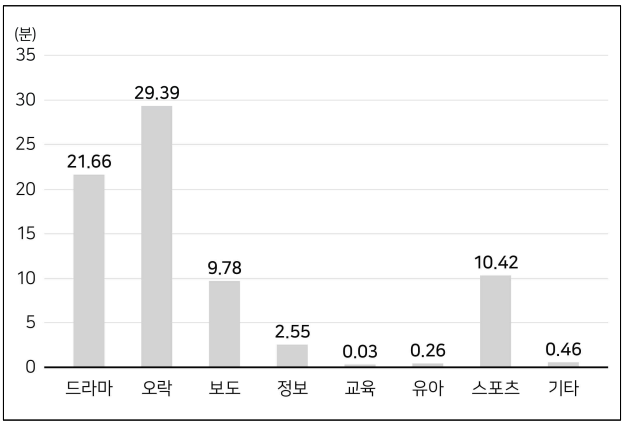


③ 성별,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자 중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비율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영상	94.7	94.7	97.0	95.3	95.6	95.4	93.1	92.0
방송프로그램	59.1	62.1	52.3	68.0	67.2	65.6	56.0	44.5

④ 방송프로그램 장르별 월평균 시청시간



⑤ 성별,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월평균 시청시간

(단위: 분)

구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영상	901.0	746.4	1,917.5	1,371.2	671.0	589.0	496.4	438.0
방송프로그램	70.0	79.6	50.7	120.5	75.5	82.9	60.1	38.6

문 26. 다음 <표>는 2019년 3월 사회인 축구리그 경기일별 누적승점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경기일별 경기 후 누적승점

(단위: 점)

팀 / 경기일(요일)	A	B	C	D	E	F
9일(토)	3	0	0	3	1	1
12일(화)	6	1	0	3	2	4
14일(목)	7	2	3	4	2	5
16일(토)	8	2	3	7	3	8
19일(화)	8	5	3	8	4	11
21일(목)	8	8	4	9	7	11
23일(토)	9	9	5	10	8	12
26일(화)	9	12	5	13	11	12
28일(목)	10	12	8	16	12	12
30일(토)	11	12	11	16	15	13

<조 건>

○ 팀별로 다른 팀과 2번씩 경기한다.
○ 경기일별로 세 경기가 진행된다.
○ 경기일별로 팀당 한 경기만 진행한다.
○ 승리팀은 승점 3점을 얻고, 패배팀은 승점 0점을 얻는다.
○ 무승부일 경우 두 팀 모두 각각 승점 1점을 얻는다.
○ 3월 30일 경기 후 누적승점이 가장 높은 팀이 우승팀이 된다.

① A팀과 C팀은 승리한 횟수가 같다.
② B팀은 화요일에는 패배한 적이 없다.
③ 모든 팀이 같은 경기일에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다.
④ C팀은 3월 14일에 E팀과 경기하여 승리하였다.
⑤ 3월 30일 경기결과가 달라져도 우승팀은 바뀌지 않는다.

문 27. 다음 <표>는 A ~ E국의 최종학력별 근로형태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갑'국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국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표> A ~ E국 최종학력별 근로형태 비율

(단위: %)

최종학력 / 근로형태 \ 국가	A	B	C	D	E
중졸	전일제 근로자	35	31	31	39	31
	시간제 근로자	29	27	14	19	42
	무직자	36	42	55	42	27
고졸	전일제 근로자	46	47	42	54	49
	시간제 근로자	31	29	15	20	40
	무직자	23	24	43	26	11
대졸	전일제 근로자	57	61	59	67	55
	시간제 근로자	25	28	13	19	39
	무직자	18	11	28	14	6

<보고서>

'갑'국의 최종학력별 전일제 근로자 비율은 대졸이 고졸과 중졸보다 각각 10%p, 20%p 이상 커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고졸의 경우 중졸과 대졸보다 크지만, 그 차이는 3%p 이하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최종학력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갑'국의 무직자 비율은 대졸의 경우 20% 미만이며 고졸의 경우 25% 미만이지만, 중졸의 경우 30% 이상이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문 28. 다음 <표>는 '갑'국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10개 직무역량 중요도의 산업분야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신입사원의 직무역량 중요도

(단위: 점)

직무역량 \ 산업분야	신소재	게임	미디어	식품
의사소통능력	4.34	4.17	4.42	4.21
수리능력	4.46	4.06	3.94	3.92
문제해결능력	4.58	4.52	4.45	4.50
자기개발능력	4.15	4.26	4.14	3.98
자원관리능력	4.09	3.97	3.93	3.91
대인관계능력	4.35	4.00	4.27	4.20
정보능력	4.33	4.09	4.27	4.07
기술능력	4.07	4.24	3.68	4.00
조직이해능력	3.97	3.78	3.88	3.88
직업윤리	4.44	4.66	4.59	4.39

※ 중요도는 5점 만점임.

<보 기>

ㄱ. 신소재 산업분야에서 중요도 상위 2개 직무역량은 '문제해결능력'과 '수리능력'이다.
ㄴ. 산업분야별 직무역량 중요도의 최댓값과 최솟값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미디어'이다.
ㄷ. 각 산업분야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직무역량은 '조직이해능력'이다.
ㄹ. 4개 산업분야 직무역량 중요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직무역량은 '문제해결능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9. 다음은 2014 ~ 2018년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압류건수 관련 정보가 일부 훼손된 서류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2014~2018년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압류건수

(단위: 건)

연도 \ 구분	부동산	기타 재산	전체
2014	122,148	6,148	128,296
2015	[illegible]136	27,783	146,919
2016	[illegible]743	34,011	158,754
2017	[illegible]9	34,037	163,666
2018	[illegible]	29,814	151,211

<보 기>

ㄱ. 부동산 압류건수는 매년 기타 재산 압류건수의 4배 이상이다.
ㄴ. 전체 압류건수가 가장 많은 해에 부동산 압류건수도 가장 많다.
ㄷ. 2019년 부동산 압류건수가 전년 대비 30 % 감소하고 기타 재산 압류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다면, 전체 압류건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25 % 미만이다.
ㄹ. 2016년 부동산 압류건수는 2014년 대비 2.5 % 이상 증가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0. 다음 <표>는 '갑'국의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시험 시행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표>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시험 시행 결과

(단위: 명, %)

등급 \ 구분	필기			실기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기술사	19,327	2,056	10.6	3,173	1,919	60.5
기능장	21,651	9,903	( )	16,390	4,862	29.7
기사	345,833	135,170	39.1	210,000	89,380	42.6
산업기사	210,814	78,209	37.1	101,949	49,993	( )
기능사	916,224	423,269	46.2	752,202	380,198	50.5
전체	1,513,849	648,607	42.8	1,083,714	526,352	48.6

※ 합격률(%) $= \frac{\text{합격자}}{\text{응시자}} \times 100$

<보 기>

ㄱ. '기능장'과 '기사' 필기 합격률은 각각의 실기 합격률보다 낮다.
ㄴ. 필기 응시자가 가장 많은 등급은 필기 합격률도 가장 높다.
ㄷ. 실기 합격률이 필기 합격률보다 높은 등급은 3개이다.
ㄹ. 필기 응시자가 많은 등급일수록 실기 응시자도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1. 다음 <표>는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 상위 9개 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 D에 해당하는 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 상위 9개 기업의 매출액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 기업	화학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매출액	화학제품 매출액 비율
비스프	72.9	17.8	90.0	81.0
A	62.4	29.7	( )	100.0
B	54.2	28.7	( )	63.2
자빅	37.6	5.3	39.9	94.2
C	34.6	26.7	( )	67.0
포르오사	32.1	14.2	55.9	57.4
D	29.7	10.0	( )	54.9
리오넬바셀	28.3	15.0	34.5	82.0
이비오스	23.2	24.7	48.2	48.1

※ 화학제품 매출액 비율(%) $= \frac{\text{화학제품 매출액}}{\text{총매출액}} \times 100$

<조 건>

○ ‘드폰’과 ‘KR 화학’의 2018년 화학제품 매출액은 각각 해당 기업의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의 80 % 미만이다.
○ ‘벡슨모빌’과 ‘시노텍’의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은 각각 총매출액에서 화학제품을 제외한 매출액의 2배 미만이다.
○ 2019년 총매출액은 ‘포르오사’가 ‘KR 화학’보다 작다.
○ 2018년 화학제품 매출액은 ‘자빅’이 ‘시노텍’보다 크다.

	A	B	C	D
①	드폰	벡슨모빌	KR 화학	시노텍
②	드폰	시노텍	KR 화학	벡슨모빌
③	벡슨모빌	KR 화학	시노텍	드폰
④	KR 화학	시노텍	드폰	벡슨모빌
⑤	KR 화학	벡슨모빌	드폰	시노텍

문 32. 다음 <표>는 6개 지목으로 구성된 A 지구의 토지수용 보상비 산출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지목별 토지수용 면적, 면적당 지가 및 보상 배율
(단위: m^2, 만 원/m^2)

지목	면적	면적당 지가	보상 배율	
			감정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
전	50	150	1.8	3.2
답	50	100	1.8	3.0
대지	100	200	1.6	4.8
임야	100	50	2.5	6.1
공장	100	150	1.6	4.8
창고	50	100	1.6	4.8

※ 1) 총보상비는 모든 지목별 보상비의 합임.
2) 보상비 = 용지 구입비 + 지장물 보상비
3) 용지 구입비 = 면적 × 면적당 지가 × 보상 배율
4) 지장물 보상비는 해당 지목 용지 구입비의 20 %임.

<보 기>

ㄱ. 모든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보상비는 변경 전의 2배 이상이다.
ㄴ.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목은 ‘대지’이다.
ㄷ. 보상 배율이 실거래가 기준인 경우, 지목별 보상비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임야’가 ‘창고’보다 크다.
ㄹ. ‘공장’의 감정가 기준 보상비와 ‘전’의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는 같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 다음 <표>는 '갑'국 5개 국립대학의 세계대학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3. ~ 문 34.]

<표 1> 2018년 '갑'국 국립대학의 세계대학평가 결과

대학	국내 순위	세계 순위	총점	부문별 점수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논문인용도
A	14	182	29.5	27.8	28.2	63.2	35.3	28.4
B	21	240	25.4	23.9	25.6	42.2	26.7	25.1
C	23	253	24.3	21.2	19.9	38.7	25.3	30.2
D	24	287	22.5	21.0	20.1	38.4	28.8	23.6
E	25	300	18.7	21.7	19.9	40.5	22.7	11.6

<표 2> 2017 ~ 2018년 '갑'국 ○○대학의 세계대학평가 세부지표별 점수

부문 (가중치)	세부지표(가중치)	세부지표별 점수	
		2018년	2017년
교육 (30)	평판도 조사(15)	2.9	1.4
	교원당 학생 수(4.5)	34.5	36.9
	학부학위 수여자 대비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2.25)	36.6	46.9
	교원당 박사학위자 비율(6)	45.3	52.3
	재정 규모(2.25)	43.3	40.5
연구 (30)	평판도 조사(18)	1.6	0.8
	교원당 연구비(6)	53.3	49.4
	교원당 학술논문 수(6)	41.3	39.5
산학협력 (2.5)	산업계 연구비 수입(2.5)	(가)	43.9
국제화 (7.5)	외국인 학생 비율(2.5)	24.7	22.5
	외국인 교수 비율(2.5)	26.9	26.8
	학술논문 중 외국 연구자와 쓴 논문 비중(2.5)	16.6	16.4
논문인용도 (30)	논문인용도(30)	(나)	13.1

※ 1) ○○대학은 A ~ E 대학 중 한 대학임.

2) 부문별 점수는 각 부문에 속한 세부지표별

$$\frac{\text{세부지표별 점수} \times \text{세부지표별 가중치}}{\text{부문별 가중치}}$$

값의 합임.

3) 총점은 5개 부문별

$$\frac{\text{부문별 점수} \times \text{부문별 가중치}}{100}$$

값의 합임.

4) 점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문 33. 위 <표>에 근거하여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나
①	38.4	23.6
②	38.7	30.2
③	40.5	11.6
④	42.2	25.1
⑤	63.2	28.4

문 34. 위 <표>를 이용하여 세계대학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보기>에서 고르면?

<보고서>

최근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이 2018년 세계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전 세계 1,250개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논문인용도 등 총 5개 부문, 13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수행된다.

2018년 세계대학평가 결과, 1 ~ 3위는 각각 F 대학('을'국), G 대학('을'국), H 대학('병'국)으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4위는 I 대학('병'국)으로 전년도 5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고 5위는 2017년 공동 3위였던 J 대학('병'국)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대학 중 최고 순위는 K 대학('정'국)으로 전년보다 8단계 상승한 세계 22위였으며, 같은 아시아 국가인 '갑'국에서는 L 대학이 세계 63위로 '갑'국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 '갑'국의 5개 국립대학 중에서는 A 대학이 세계 182위, 국내 14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는데, 논문인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별 점수에서 5개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C 대학은 연구와 산학협력 부문에서 2017년 대비 점수가 대폭 하락하여 순위 또한 낮아졌다.

<보 기>

ㄱ. 2017 ~ 2018년 세계대학평가 순위
ㄴ. 2017 ~ 2018년 세계대학평가 C 대학 세부지표별 점수
ㄷ. 2017 ~ 2018년 세계대학평가 세부지표 리스트
ㄹ. 2017 ~ 2018년 세계대학평가 A 대학 총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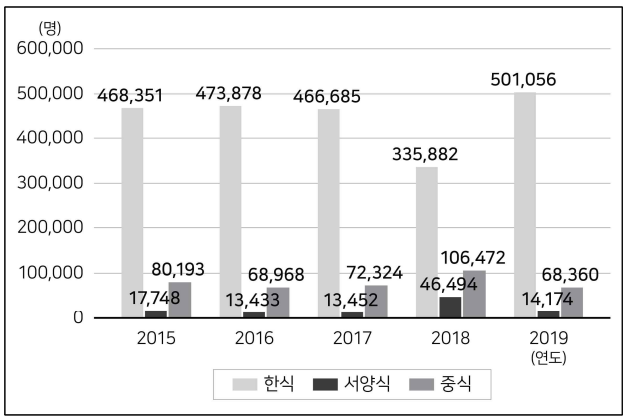
문 35. 다음 <표>는 2015 ~ 2019년 '갑'국 음식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갑'국 음식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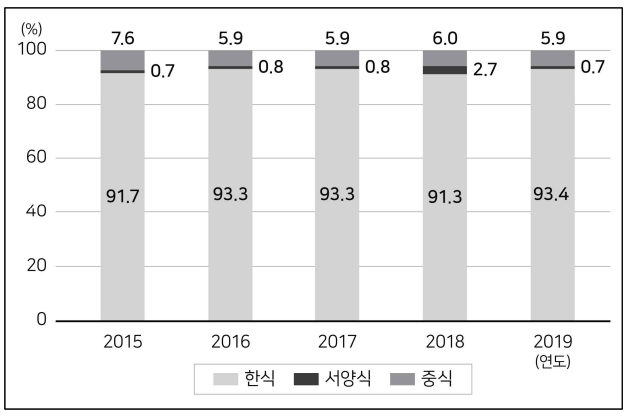
(단위: 개, 명, 억 원)

구분	업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체	한식	157,295	156,707	155,555	158,398	159,852
	서양식	1,182	1,356	1,306	4,604	1,247
	중식	13,102	9,940	9,885	10,443	10,099
	계	171,579	168,003	166,746	173,445	171,198
종사자	한식	468,351	473,878	466,685	335,882	501,056
	서양식	17,748	13,433	13,452	46,494	14,174
	중식	80,193	68,968	72,324	106,472	68,360
	계	566,292	556,279	552,461	488,848	583,590
매출액		67,704	90,600	75,071	137,451	105,603
부가가치액		28,041	31,317	23,529	23,529	3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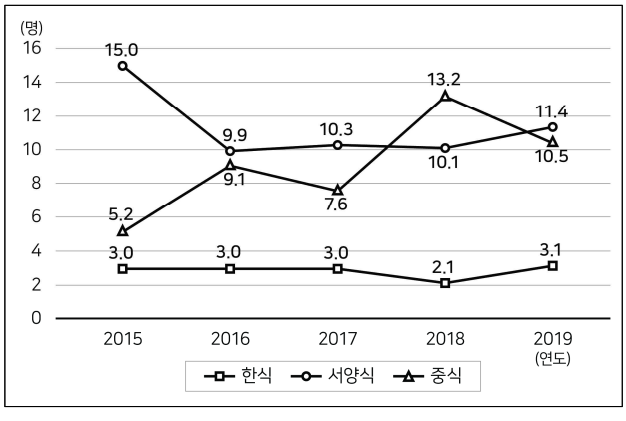
① 업종별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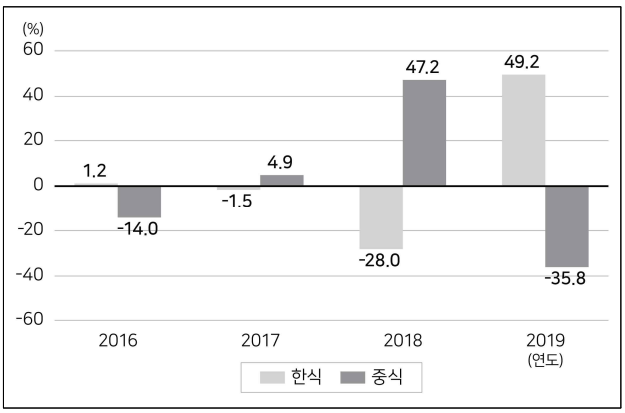
② 업종별 사업체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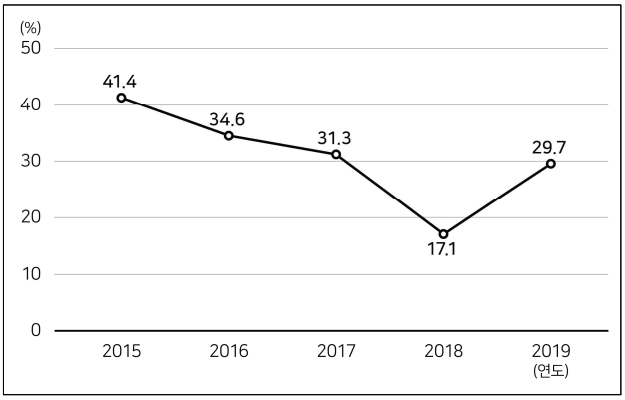
③ 업종별 사업체당 종사자



④ 한식, 중식 종사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⑤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율



문 36. 다음 <표>는 A 지역 물류산업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지역 물류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억 원, 명)

구분 \ 업종	종합 물류업	화물 운송업	물류 시설업	물류 주선업	화물 정보업	합
업체 수	19	46	17	23	2	107
매출액	319,763	32,309	34,155	10,032	189	396,448
종업원	22,436	5,382	1,787	1,586	100	31,291
전문인력	3,239	537	138	265	8	4,187
자격증 소지자	1,830	316	80	62	1	2,289

※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전문인력임.

<보 기>

ㄱ. 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종합물류업'이다.
ㄴ. 종업원 중 자격증 소지자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매출액당 전문인력 수가 가장 많은 업종과 동일하다.
ㄷ. 업체당 전문인력 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물류시설업'이다.
ㄹ. 업체당 종업원 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종업원 중 전문인력 비중도 가장 낮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7. 다음 <표>는 유통업체 '가' ~ '바'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유통업체 '가' ~ '바'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현황

(단위: 명, %)

유통업체	사업장	업종	비정규직 간접고용 인원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
가	A	백화점	3,408	74.9
나	B	백화점	209	31.3
다	C	백화점	2,149	36.6
	D	백화점	231	39.9
	E	마트	8,603	19.6
라	F	백화점	146	34.3
	G	마트	682	34.4
마	H	마트	1,553	90.4
바	I	마트	1,612	48.7
	J	마트	2,168	33.6
전체			20,761	29.9

※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 = $\frac{\text{비정규직 간접고용 인원}}{\text{비정규직 간접고용 인원} + \text{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 \times 100$

<보 기>

ㄱ. 업종별 비정규직 간접고용 총인원은 마트가 백화점의 2배 이상이다.

ㄴ. 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은 A가 H의 10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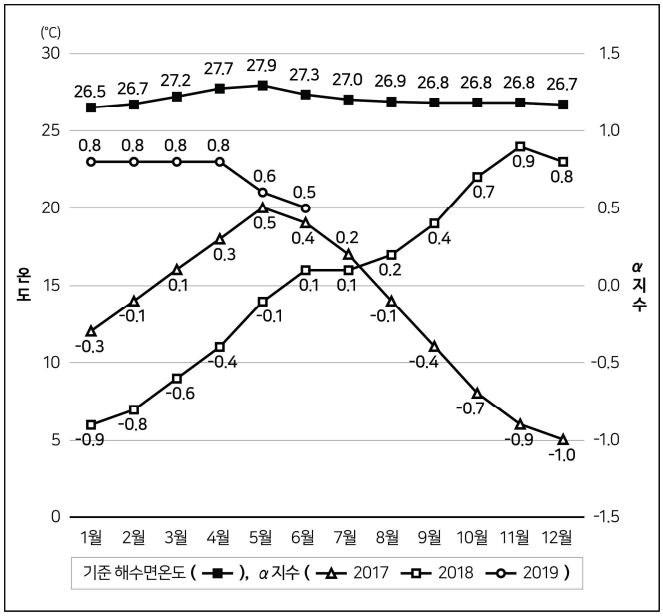
ㄷ.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장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은 다른 9개 사업장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의 합보다 많다.

ㄹ. 유통업체별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은 '다'가 '라'보다 높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38. 다음 <그림>과 <정보>는 A 해역의 해수면온도 변화에 따른 α 지수, 'E 현상' 및 'L 현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기준 해수면온도와 α 지수



<정 보>

○ '기준 해수면온도'는 1985 ~ 2015년의 해당월 해수면온도의 평균임.

○ '해수면온도 지표'는 해당월에 관측된 해수면온도에서 '기준 해수면온도'를 뺀 값임.

○ α 지수는 전월, 해당월, 익월의 '해수면온도 지표'의 평균값임.

○ 'E 현상'은 α 지수가 5개월 이상 계속 0.5 이상일 때, 0.5 이상인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있었다고 판단함.

○ 'L 현상'은 α 지수가 5개월 이상 계속 -0.5 이하일 때, -0.5 이하인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있었다고 판단함.

① '기준 해수면온도'는 8월이 가장 높다.
② 해수면온도는 2019년 6월까지만 관측되었다.
③ 2018년에는 'E 현상'과 'L 현상'이 둘 다 있었다.
④ 'E 현상'은 8개월간 있었고, 'L 현상'은 7개월간 있었다.
⑤ 월별 '기준 해수면온도'가 1 ℃ 낮았더라도, 2017년에 'L 현상'이 있었다.

문 39. 다음 <표>는 종합체전 10개 종목의 입장권 판매점수 관련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종합체전 종목별 입장권 판매점수

(단위: 점)

종목	국내 판매점수	해외 판매점수	판매율 점수	총점
A	506	450	290	1,246
B	787	409	160	1,356
C	547	438	220	1,205
D	2,533	1,101	( )	4,104
E	( )	( )	170	3,320
F	194	142	120	456
G	74	80	140	294
H	1,030	323	350	( )
I	1,498	638	660	( )
J	782	318	510	( )

※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조 건>

○ 국내판매점수 $= \frac{\text{해당 종목 입장권 국내 판매량}}{\text{입장권 국내 판매량}} \times 10{,}000$

○ 해외판매점수 $= \frac{\text{해당 종목 입장권 해외 판매량}}{\text{입장권 해외 판매량}} \times 5{,}000$

○ 판매율점수 $= \frac{\text{해당 종목 입장권 (국내 + 해외) 판매량}}{\text{해당 종목 입장권 발행량}} \times 1{,}000$

○ 총점 = 국내판매점수 + 해외판매점수 + 판매율점수

<보 기>

ㄱ. E종목의 '국내판매점수'는 '해외판매점수'의 1.5배 이상이다.

ㄴ. '입장권 국내 판매량'이 14만 매이고 '입장권 해외 판매량'이 10만 매라면, 입장권 판매량이 국내보다 해외가 많은 종목 수는 4개이다.

ㄷ. '해당 종목 입장권 발행량'이 가장 적은 종목은 G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문 40. 다음 <표>는 '갑'국의 A지역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A지역 어린이집 현재 원아수 및 정원

(단위: 명)

구분 / 어린이집	현재 원아수						정원
	만 1세 이하	만 2세 이하	만 3세 이하	만 4세 이하	만 5세 이하	만 5세 초과	
예그리나	9	29	71	116	176	62	239
이든샘	9	49	91	136	176	39	215
아이온	9	29	57	86	117	33	160
윤빛	9	29	50	101	141	40	186
올고운	6	26	54	104	146	56	210
전체	42	162	323	543	756	230	–

※ 각 어린이집의 원아수는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표 2> 원아 연령대별 보육교사 1인당 최대 보육가능 원아수

(단위: 명)

구분 / 연령대	만 1세 이하	만 1세 초과 만 2세 이하	만 2세 초과 만 3세 이하	만 3세 초과 만 4세 이하	만 4세 초과
보육교사 1인당 최대 보육가능 원아수	3	5	7	15	20

※ 1) 어린이집은 최소인원의 보육교사를 고용함.
2) 보육교사 1인은 1개의 연령대만을 보육함.

<보 기>

ㄱ. '만 1세 초과 만 2세 이하'인 원아의 33% 이상은 '이든샘' 어린이집 원아이다.

ㄴ. '올고운' 어린이집의 현재 보육교사수는 18명이다.

ㄷ. 정원 대비 현재 원아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어린이집은 '아이온'이다.

ㄹ. '윤빛'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만 3세 초과 만 4세 이하'인 원아를 최대 5명까지 더 충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